

古南里 貝塚 遺蹟의 性格 - B-3호 패총을 중심으로 -

蘇 相 永 (기전문화재연구원)

I. 서론

안면도 고남리패총은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1988년부터 1997년에 이르기까지 8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¹⁾를 실시한 유적으로 A-2호패총(1차발굴조사), B-1,2패총(2차발굴조사), B-3호패총(4~8차발굴조사)에서 신석기문화층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A-2호 패총은 파괴가 심하여 전체 양상을 파악하기는 어렵고, B-1,2호패총은 청동기패총의 최하층에서 빗살무늬토기 몇 점만이 출토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가장 양호한 상태로 남아있는 B-3호패총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서해안에 위치한 많은 패총유적은 유물의 빈약함, 단일토층의 양상으로 보아 내륙집단이 사냥을 목적으로 한 단기적인 점유에 의해 형성된 유적이라는 견해가(장호수 1988) 제시되었고, 이후 임상택에 의해 논의가 진전되었다.

임상택은 서·남해안의 패총유적을 유물복합체, 층위, 유구상의 차이를 근거로 근거지유형과 야외캠프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근거지유형의 특징으로는 장기간에 걸친 반복퇴적의 양상, 다양하고 풍부한 석기군과 토기문양의 다양성, 주거지 또는 매장유구의 존재를 들고, 야외캠프유형의 특징으로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퇴적양상, 빈약한 석기구성, 토기문양의 단순성, 항구적 유구의 미비 등을 들고 있다(임상택 1998). 임상택의 연구는 패총을 단순한 폐기유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탈피한 시도로 필자도 그의 주장에 대부분 동감한다.

하지만 임상택의 견해와 같이 서해안에 위치한 모든 패총유적이 야외캠프형이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려우며, 특히 고남리 B-3호패총은 주거유적과 관련하여 형성된 유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 아래 안면도의 자연환경과 유구, 유물복합체를 검토하여 고남리 B-3호패총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이 외에도 한서대학교박물관에 의해 1차례 발굴이 실시되었다.
안덕임·유병린, 1999, 「안면도 고남리패총」 한서대학교 박물관.